

W:WOOSUNG

2024년 4월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4월 2주차 HOT ISSUE

- 미국서 젃소 AI 감염 사례 첫 확인
- ‘양돈 위탁’ 가속…사육 구조 바뀌나

곡물 수입단가지수 10분기 내 최저 전망… 식품·사료값 인하 압박 거세질 듯

올 2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가 최근 10분기 내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펴낸 올 3월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에서도 곡물 지수는 각각 전달 대비 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사료값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4월 국제곡물 관측’에 따르면 올 2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식용 138.8, 사료용 135.5로 예측됐다.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2015년 가격 수준을 100으로 한다. 올 1분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144.9, 사료용은 141.1이었다. 2분기엔 여기에서 각각 4.2%, 4% 하락한다는 게 농경연 측 설명이다.

이같은 전망은 2021년 4분기(식용 139.6, 사료용 135.6)에 이후 가장 낮다. 곡물수입단가지수는 2022년 3분기 식용 192.4, 사료용 191 등 치솟았지만 이후 지난해 1분기부터 빠르게 안정화하고 있다.

곡물수입단가지수가 2년 3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수입 곡물을 주로 원료로 활용해온 국내 가공식품·사료업계의 제품 가격 거품 논란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FAO가 5일(현지시각) 펴낸 올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에서도 곡물·설탕 지수는 각각 전달 대비 2.6%, 5.4% 하락했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현재 농협사료는 이달 4일부터 출고하는 배합사료값을 25kg들이 한포대당 250원씩 평균 2% 인하했다. 대구경북양돈농협을 비롯한 지역축협에서도 1일부터 사료값을 1kg당 15원씩 낮췄다.

하지만 농협 외에 다른 민간 업체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아직 내비치지 않고 있다. 축산 분야 생산자단체가 민간 사료업계의 동참을 잇따라 촉구하는 배경이다.

“염소산업 경쟁력 키웁시다”



임기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왼쪽)이 3월28일 전북 남원에 있는 흑염소농가를 찾아 염소 사육 전반을 청취하고 있다. 임 원장은 번식·비육으로 분리된 사육시설과 농장 직영 유통판매장을 둘러보며 국산 염소고기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농진청에 따르면 주로 약용으로 쓰이던 염소고기가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면서 2022년 기준 국내 염소 사육마릿수는 43만마리에 이르고 있다.

염소산업 생산액도 2017년 797억원에서 2022년 1672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미국서 젖소 AI 감염 사례 첫 확인

미국서 젖소가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 해당 목장에서 사람이 젖소와의 접촉으로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낙농매체 Dairy Herd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미국 농무부(USDA) 동식물 위생검사국(APHIS)은 텍사스, 캔자스의 목장 3곳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1)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AI 감염은 젖소에선 처음 확인된 사례로, 지난 3월 22일 텍사스의 한 목장에서 죽은 야생 조류를 발견했다는 신고에 따라 착수된 조사에서 밝혀졌으며, 이후 뉴멕시코, 아이다호, 미시간 등 최소 5개주로 확산된 상황이다.

APHIS “샘플 조사결과 전국의 조류에서 퍼지고 있는 AI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으로 판단됐다”며 “현재까지의 보고에선 AI 감염에 의한 젖소 폐사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I 감염은 주로 고령의 젖소에서 나타났다. 이 젖소들은 식욕 감소와 발열, 우유 생산량 감소, 걸쭉한 우유 농도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일엔 텍사스에서 AI에 감염된 인간 사례가 보도됐다. 텍사스주 보건 서비스부(DSHS)는 목장서 감염체와의 밀접한 접촉에 의해 전파됐으며, 눈 염증 등 경미한 증상만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은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낮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AI 감염 의심 동물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감염 위험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미국의 원유공급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USDA는 AI에 오염된 우유는 폐기되고 있으며, 저온 살균 공정과정에서 박테리아가 파괴돼 우유의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3월 초 미네소타주의 한 농장에서 AI 감염 염소가 보고되는 등 일각에선 포유류 간의 전파를 우려하고 있다.

또, 감염된 젖소는 14~21일간 유생산량이 20% 가량 감소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축의 AI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신고와 강화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텍사스 농무부 장관 시드 밀러는 “목장에선 급수 장치 세척 및 소독과 물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식수를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가금류와는 달리, 젖소의 개체 수를 줄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우 사육기간 줄여 생산비 낮춘다… 정부, 연내 소 단기 사육모델 개발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30개월에 달하는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해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격은 낮추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를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하는 제도를 확산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국 다양한 농가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말부터 사육두수 과잉으로 인한 한우고기 공급 증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고기 도매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한우 생산비의 60%를 차지하는 사료값이 크게 상승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강원대학교·전남대학교와 함께 2022년부터 소 단기 사육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 송아지 600마리를 구매해 유전형질, 사육기간, 영양수준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각각 적용해 24개월·26개월·28개월이 됐을 때 경제성·품질 평가를 시행했다.

또 송아지 유전형질 분석을 통해 높은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개체는 26~28개월 사육하고, 낮은 개체는 24개월까지 사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5개의 한우 단기 사육모델을 올 12월까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한우 사육기간이 30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들면 사료비가 약 32%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ASF 차단울타리 “없애라” vs “위기단계 ‘심각’ 당장 안돼”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2019년부터 설치한 차단울타리가 존폐 기로에 섰다. 울타리 때문에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집단 폐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방역당국은 고심에 빠졌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양 폐사체(멸실)신고 접수 건수는 570마리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88마리)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환경부가 2019년 추산한 국내 산양 개체수는 1000마리가량인데 전체의 절반 이상이 폐사한 것이다.

정부는 산양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17호로도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한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지난겨울 강원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 탓에 먹이가 부족해지고 이동 장애 때문에 아사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산양 생태를 꾸준히 추적해온 환경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환경부가 ASF 감염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차단울타리가 산양의 집단폐사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2019년 11월~2022년 5월 전국 34개 시·군에 걸쳐 1831km에 달하는 차단울타리를 설치했다. 그중 1179km는 강원지역에, 352km는 경기지역에 있다.

현재 국내 산양 최대 서식지로는 비무장지대(DMZ)와 강원 화천·양구, 그리고 설악산 일대가 꼽힌다. 강원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차단울타리로 산양의 먹이활동을 크게 제약했다는 게 환경단체의 분석이다.

한돈 도매시장 11곳서 10곳으로



‘대구광역시 축산물 도매시장’이 이달 1일부로 폐쇄됐다. 이에 실질적인 한돈 도매시장은 기존 11곳서 10곳으로 감소하면서, 한돈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을 4월 1일부로 폐쇄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매시장 이전한 지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당초 설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고,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위생 및 안전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우려가 있어왔다고 폐쇄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 입지적·유통적·재정적·기능적 측면에서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론과 군위군 편입으로 인해 군위민속LPC(처리 능력 : 돼지 1,500두/일)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시가 직접 도축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돈업계는 대구시 도매시장 폐쇄로 국내 도매시장 물량 감소에 따른 대표가격 논란 심화 및 돈가 하락을 불러오는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 도매시장서 경락된 규격돈 두수는 4만3천955두로 전체 경락두수(46만6천402두) 대비 9.4%를 점유했다. 즉 대구시 도매시장 폐쇄는 연간 10%의 도매시장 경락두수 감소로 이어져 한돈 가격 형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대구 도매시장에서는 2등급 판정 돼지 비율이 68%(3만36두 경락) 높았던 특징이 있었다.

이에 폐쇄 이후 위축돈들이 인근의 고령공판장과 부경공판장으로 이동하면서 2등급 경락 물량 증가로 전국 한돈가격 하락을 초래할 여지가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돈 질소 저감 사료 기준 나왔다



올해부터 축산분야에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비용을 보전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질소저감 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이 마련됐다. 돼지의 경우 올해부터 질소저감 사료 급여 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비용을 보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 저감 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 질소 저감 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해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질소저감 사료로 표시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기준이 마련된 질소 저감 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고 양돈 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Δ 이유돈=1.3% 이상 Δ 육성돈=1.0%, Δ 비육돈=0.8% Δ 임신돈=0.62% Δ 포유돈=0.9%)을 마련해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농축산부는 양돈 사료 단백질이 1% 감소할 경우 질소 배출이 7.7%, 암모니아는 10~12%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돈 위탁’ 가속… 사육 구조 바뀌나



최근 양돈업 구조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도시화 및 지방 분권화, 아울러 사육 규제 강화 등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 요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생산비 급등 요인까지 향후 양돈업 구조 변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돈미래연구소가 운영 중인 한돈 전산 프로그램 한돈팜스는 전국 대부분의 농장 성적을 집계하고 있다. 이에 한돈팜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산 등록된 농장 수는 3천829개다. 이 중 모돈을 사육 중인 농가는 2천 741호다. 즉 모돈을 사육하지 않는 농장은 1천88호로, 이 농장들은 대부분 위탁 사육 농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가 갈수록 위탁 사육 농장이 증가하고 있다. 한돈팜스 기준 모돈을 사육하지 않는 농가는 19년 861농가, 20년 946농가, 22년 1천농가 돌파 등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이 한돈업 구조는 향후 5년간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양돈장 고령화 및 도시화, 그리고 동물복지 전환 및 탄소 저감 등 각종 정부의 규제 정책이 원인이다. 이에 2세가 없는 양돈장을 중심으로 폐업, 매각, 임대, 위탁 등의 변화가 클 것으로 특히 경쟁력 있고 규모 확대 의지가 있는 농가는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위탁 형태의 계열화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성적 상위권의 재투자자가 가능한 경쟁력 있는 농가 위주로 한돈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 있는 농가의 경우 생산성 증대와 규모 확대 속 위탁장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축산업 허가제로 인해 신규 허가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위탁장 확보는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하위권의 재투자 여력이 부실한 농가들은 부채로 연명 또는 위탁장 전환, 그리고 경쟁력 있는 농가 및 기업에 매각, 임대 등의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계사에 음압시스템 도입... 악취민원 '0'



전북 정읍에 자리한 정원농장(대표 김준영)은 의료기관에서 쓰는 최첨단 환기시설을 갖춘 육계농장이다.

이 농장은 전체 면적 4167㎡(1261평)에서 육계 9만5000마리를 사육한다. 연간 출하량은 58만5000마리다. 농장을 건립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21억원. 전액 스마트팜 종합자금으로 충당했다. 현재 연간 매출액은 13억원가량이고 투자비는 상환 중이다.

2022년 2월 준공한 정원농장은 냄새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 비결은 음압 환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병실에서 주로 쓰인다. 공기압이 낮은 내부의 공기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해 축사 내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다.

정원농장은 스웨덴 기업 문터스에서 만든 음압 환기시스템을 도입했고, 설치에 3억원 정도 들었다. 김 대표는 “우리 농장에 설치된 음압 환기시스템은 설정한 온도값에 맞춰 자동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순환돼 냄새가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으면서 적절히 환기가 이뤄져 닭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닭은 환절기 호흡기질병에 취약한 가축이다. 하지만 정원농장은 병아리 육성률이 100%에 달할 정도로 폐사가 드물다. 국내 육계 유통은 주로 계열화 구조로 이뤄진다. 즉 기업이 육계농장에 병아리를 제공하면 농장은 병아리를 키워 기업에 출하한다. 이 때문에 육성률은 중요한 생산성 지표가 된다. 또 육계 생산비 효율 지표인 ‘사료요구율’의 경우 정원농장은 1.48로 양호한 편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성적을 의미한다. 국내 농가 사료요구율은 2 정도다.